1. **국가법령정보센터 : Chat GPT 이용 판례를 풀이, 법률용어주석, 키워드 추출 및 카테고리화로 관심 분야를 쉽게 검색**

* 조원창 : 데이터 확보 및 주제선정동기가 명확하지만 gpt api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점이 걱정된다. api가 제공하는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걱정된다. 웹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확장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 강동완 : 헌재와 대법원 판례중 최근 화제가 되는 키워드를 ‘메타트렌드’(ex- 네이버 뉴스?) 시각화 결과와 비교하여 해당 판례들만 추린 후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 / 유사 판례 및 현재 진행중인 재판결과도 첨부
* 김현 : Chat GPT가 오류를 많이 일으킬것같은데 문제 해결이 확실히 될지 모르겠다. 법률용어주석과 키워드 추출은 좋다고 생각
* 유동재 : 판례 기반으로 작업을 할 때, 판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판례에 대한 해석을 기준으로 작업하는 방법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판례를 일반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지식이나 단어, 기자들이 올린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놓거나 화제가 된 사건들을 알 수 있도록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다.
* 박민우 : 단순히 판례의 풀이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집어넣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떤 판결이 나올것인지 예측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을것같다. 다만 gpt에 대한 의존이 매우 커지는 것이 난점. 법률용어의 주석은 매우 유용할 것 같음.
* 유해린 : 주제선정동기가 가장 뚜렷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을 것 같다

1. **여행지와 일정 입력에 따른 숙박정보 및 교통편 등을 통합 제공.**

* 조원창 : 국내 한정으로 코레일, 고속버스, 숙박플랫폼 등에서 크롤링 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 제공 등의 기능도 구현가능할것 같다

ex) Booking에서 숙박정보 수집, 찜카에서 항공편 수집

ex) 일정시간 단위로 국내 주요 관광지의 숙박 및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일정과 금액을 입력받아 여행지를 추천하는 기능?

* 김현: 국내로 좁혀서 한정한뒤에 확실하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는것도 좋을것 같다
* 강동완 : 국내한정으로 좁힌다면 기존의 서비스들과 차별점이 있어야 할 텐데, 숙박서비스와 교통안내는 이미 시중에 수 많은 어플과 사이트들이 존재한다.

이들과 어떤 경쟁력을 가질만한 우리 프로젝트’만’의 아이디어가 있는가?

* 유해린 : 지역범위를 좁히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면 좋을것 같다.

* 박민우 : 범위를 좁힌다면 나오는 결과가 엇비슷하게 되어버리고 범위를 넓히면 필요한 정보량이 너무 많아진다. 타협점을 찾는게 중요할것 같다

1. **친환경 제품 실효성 비교, 리뷰, 기업소개, 통계 시각화, 교환플랫폼**

* 조원창 : 특정 제품에만 사용가능하지 않도록 범용성을 갖게 하는 방법이 걱정된다 제품 별 실효성에 대한 기준과 유사제품들을 선택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정형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 김현: 친환경 제품이 프로젝트로 다룰만큼 리뷰와 비교가 가능할만큼 다양해야할텐데 데이터가 충분할지 모르겠다.

* 박민우 : 접근 방법은 좋지만 제품을 친환경성 하나만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기준들도 포함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것같다
* 유해린 : 친환경 제품을 비교하기 위한 제품에 관련한 데이터와 ‘친환경’에 부합하는 조건을 충족할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울 것 같다.
* 강동완 : 시중에 판매되는 ‘친환경’ 이름을 단 제품들 서비스를 분야별(음식, 가전, 의류 등) 검색, 크롤링 기준으로 수집 > 해당 상품의 정보 (가격, 특정 성분 수치, 공정 및 제조과정) 등을 DB에 저장하고 비교분석 /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유통데이터 파악

1. **이전기수 취업정보제공 심화**

* 조원창 : 따라쟁이…궂이 왜 필요해?
* 유동재 : 채용공고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것 까지는 의미 있을 것 같으나, 그 이후는 잘 모르겠다.
* 김현: 취업정보 제공 외에 부가적인 시스템이 확실하게 있는게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을것같다
* 강동완 :
* 박민우 : 취업 정보 제공에 그치지 말고 각 기업에 맞게 자소서 첨삭과 관련 자격증 취득까지 연계된다면 좋을것같다
* 유해린 : 클래식이즈베스트.. 민우가 말한것 처럼 취업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취업에 연계된 다른 서비스까지확장하면 좋을것같다.

1. **부동산거래맵핑**

* 조원창 : 필요성과 해결 방법이 명확하다. 데이터의 주소를 지도api에 적용할 때 예외 및 오류 발생이 걱정된다. 프로젝트 규모가 작은 점이 걱정된다.
* 유동재 : 개인이 할 만한 프로젝트 단위 인 것이 걱정된다. 시중에 서비스 되고 있는 부동산 플랫폼이 많은 것도 실용성 측면에서 안 좋다.
* 강동완 : 지도시각화 외의 방법?

부동산거래 데이터경우 그 거래가에 대한 사실상 기준이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왜곡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러한 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경제 - 부동산의 경우 > 현상에 대한 예측(기대심리)으로 시장이 변질되는 결과도 초래하는데, 부동산거래맵핑의 결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김현 :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점에 동의한다.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가 있어야할것같다.

박민우 : 맵핑의 데이터가 누군가의 의도로 오염되는 것에 경계가 필요할것 같다. 부동산에 쓰여있는 거래가와 실제 거래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차이를 적용하는 것도 필요해보임

1. **등기상황증명서 데이터 제공**

* 조원창 필요성과 해결 방법이 명확하다. 다만 프로젝트 규모가 작은 점이 걱정된다.

등기상황증명서 뿐 아니라 다른 문서 정보도 취합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은 없을까?

* 유동재 : 정말 필요에 의한 특정 과제라서 다른 기술 스택과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힘들다. 또한 시작 단계의 프로젝트이며 다른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프로젝트 과제로 진행하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한정적이어서 프로젝트의 규모가 작을 수 밖에 없다.
* 김현 : 규모가 작은만큼 제공하는 데이터에 메리트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부가적인 도움을 더 줄 수 있다면 좋을것같다
* 강동완 : RPA 이외의 분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 등기상황증명서의 데이터는 접근하기 쉬우나 이 데이터를 추후 어떻게 다른 영역에 추가적으로 활용가능한지 다음 단계의 청사진이 없다면 최종 프로젝트주제로는 부족하지 않나
* 박민우 : 데이터 제공 뿐 아니라 사용처 등 제공된 데이터와 연관된 정보의 제공도 필요할 것같다